익산 방문의 해, 관광 활성화 견인

성과보고회 개최, 관광발전 유공자 표창… 내년도 '쉼과 휴식' 테마 관광콘텐츠 강화

익산시가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내년에는 '쉼과 휴식'을 테마로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궁웨딩홀에서 '2023 익산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관광재단, 전라북도종합마케팅지원센터, 숙박 및 외식업 등 관광업계 종사자 8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지난해 11월 '2023 익산방문의 해' 선포식을 치른 후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익산관광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가장 큰 성과로 서동축제와 천만송이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익산문화재야행, 미륵사지 미디어아트페스타, NS푸드페스타,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등 익산만의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결합한 축제·행사들의 잇단 성공으로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크게 제고했다는 점을 꼽았다.

시는 내년에는 '쉼과 휴식'의 테마로 아가페정원 등 정원관광지, 서동공원 등 생태관광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백제역사유적지구)의 백제역사관광지 등 다채로운 관광지에 차별화된 콘텐츠를 결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관광객이 익산에 머무르는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야간콘텐츠를 개발해 더 많은 관광객을 모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는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농업인 농가경영안정에 도움 되길"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231억 지급

군산시는 지난달 30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31억원을 1만 253명의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2020년에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소득, 영농기간 등 소농요건을 충족할 경우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차등 적용해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시는 지난 2~5월 신청을 받아 농업인 및 농지, 소농직불 요건 등에 대한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1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소농직불금은 1,798농가 21억원, 면적직불금은 8,455농가 210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요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5억여원이 증가했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농자재값 상승과 쌀값 하락에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는 오는 2일부터 동부권 금마~왕궁 수요응답형(DRT) 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콜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사진=익산시청 제공〉

익산시, 금마~왕궁 수요응답형 버스 노선 개편 나서

익산시는 오는 2일부터 동부권 금마~왕궁 수요응답형(DRT) 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콜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금마·왕궁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개편은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비효율적 부분을 개선하고 교통 불편 민원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탑승객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노선제를 축소하고, 콜제 확대로 주민의 이동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오후 12시 35분부터 5시 25분까지 운영되던 콜제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5분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동부권 주민들은 오전 9시부터 전화로 버스를 불러 편리하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버스 수요 민원을 반영해 노선을 확대하거나 통폐합하기도 했다. 금마 터미널에서 미륵사지를 거쳐 원기산 방면으로 가는 노선을 연장해 대파니를 경유하고, 미륵사지를 거쳐 과학고와 물머리집 입구로 향하는 구간 노선과 통합해 하나의 노선으로 운행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노선을 연장하는 마을 주민 요구도 수용했다.

왕궁면 주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왕궁행정복지센터에 갈 수 있게 됐다. 기존 노선은 금마터미널에서 신정, 궁평, 왕궁행정복지센터를 지나 양동, 안림, 서동 공원 입구로 도는 한 방향 노선만 있어 일부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러 가기 위해서는 금마 터미널에서 환승을 해야 했다.

시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노선을 새롭게 만들어 이동 편의와 승차 시간을 단축했다. 또 노선 탑승객이 거의 없는 왕궁면 온수리 쪽 노선을 폐지하고 해당 지역 버스 수요는 콜제로 흡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운영상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개편과 콜제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해 시민에게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항·새만금신항 One-Port 전략수립 중간보고회

군산항·새만금신항 기능 정립·운영·관리 방안 모색

군산시가 지난달 30일 군산항·새만금신항 ONE-PORT 전략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김미정 부시장의 주재로 시청 상황실(4층)에서 '군산항·신항 One-Port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중간보고회에는 관계기관과 기업, 단체 및 학계 등이 참여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오는 2025년 1단계로 잠화부두 2개 선석이 완공되기 이전에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특화 방안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의 조성배경에 비추어 볼 때 군산의 귀속은 당연한 것으로 군산항의 수심 부족 기능을 보완하고 군산항의 항세 확장의 연장선상에서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이 본래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5월 30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4월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군산항과 신항의 지정학적 배경·해운·항만 여건 분석,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역할 분석, 항만행정체계 단일화 영향 분석, 지역경제기여도 분석 등이며 이를 통한 군산항과 신항의 One-Port 전략수립과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유관기관, 기업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군산항과 신항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농기센터, 농산물안전성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달 30일 '안전농산물 기술보급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한 2023년 식량작물 및 과학영농 분야 기술보급 종합평가회에서 진행된 '안전농산물 기술보급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분에서 농촌진흥청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 대회는 식량작물과 안전농산물 기술 보급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가운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8개 기관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는 "더 깐깐한 농산물 안전성 협업검사, 안심 먹거리 공급으로 소비자 믿음 높인다."라는 주제로 발표 심사위원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농기센터는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내에 농산물안전분석실과 종합검정실, 병해충진단실 등을 구축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확보와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토양, 농산물잔류농약, 병해충진단 등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안전분석실은 현재까지 로컬푸드 인증 및 직매장 납품 농산물 425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25건, 친환경농산물 136건, 유통 및 PLS 대응 165건의 농산물검사를 실시해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아이들이 추천한 놀이문화공간 홍보물 제작

아동친화도시 익산시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추천하는 놀이 문화공간 홍보물을 제작했다.

시는 아동 의견을 반영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공간 10곳을 홍보 책자 '별점 놀이터, 여긴 어때?'에 아이들의 시선으로 소개했다.

선정된 문화놀이공간은 △서동농촌테마공원(액션하우스) △공룡테마공원 △교도소세트장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아가페정원 △국립익산박물관 △용안생태습지 △공공승마장 △웅포관광지 캠핑장 △반려동물 놀이터다.

우선 어린이 157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문조사에서 후보지 25곳이 추려졌다. 이어 아동 권리 모니터링 단원이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2차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가 높은 순으로 최종 10개소가 선정됐다.

'별점 놀이터, 여긴 어때?' 홍보물은 학교·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군산시는 12월 말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말소·폐차,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 세액 착오 신고, 이중납부 등에 의해 발생된다.

올해 11월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2,031건, 총 4,994만원에 달한다.

시는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납세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및 문자(모바일 전자고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우편 및 문자를 받은 환급금 지급대상자는 카카오톡채널 '군산시지방세환급', 문자, 전화 등을 통해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환급금은 일주일 내 은행계좌로 지급된다.

/군산=김판곤 기자